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베네수엘라의 위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안태환

2017년 7월 30일 제헌의회 선거에서 차베스주의 세력이 승리한 것은 특이하다.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 상황과 폭력 앞에서 약 800만 명 이상 투표하려 줄을 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결정적 매듭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데 무엇인가 이상하다.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전하는 미디어의 뉴스와 현실적 맥락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팩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때 이 해석을 친미 자유주의 주류 미디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차베스 사망, 과거 배럴당 150불 하던 유가가 20불-40불선으로 하락, 2015년 12월 총선에서 친미 야권의 승리, 2017년 3월 29일 대법원의 의회권력 박탈 결정,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야권의 격렬한 반정부 시위, 2017년 7월 30일 제헌의회 선거 차베스주의 세력 승리, 제헌의회가 최고 권력기관임을 마두로가 법령으로 선포, 2017년 12월 23개 주 주지사 선거 예상 등의 정치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야당 세력의 목적은 마두로 정부의 실각이다. 과거의 과두정치와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대중 운동세력은 이렇게 될 경우 재앙이 됨을 알고 저항하고 있다.



2017년 3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 (출처: <https://eldiaryony.com/>)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두로가 “독재권력 다지기에 나섰다”(한겨레 8월 9일자, 1)고 한다. 7월 30일 제헌의회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패배한 야권은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심이 폭발’하고 있고, 국제기구와 각국정부도 제재를 ‘검토’(오마이뉴스 8월 3일자, 1)하고 있다. 이 뉴스는 미국의 CNN이 전한 뉴스다. 6월에는 미주기구(OAS)에서 반 마두로 결의안을 추진하려다 실패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를 유혈진압(오마이뉴스 8월 3일자, 2)하고 있다고 한다.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오마이뉴스 8월 3일자, 2)고 하고 어느 인터넷 매체는 “120여명이 숨졌다”(뉴시스 8월 12일자, 2)고 한다. 그런데 누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는 없다. 과림바(guarimba)라고 부르는 일부 반정부 시위대의 불법적 폭력시위에 대한 보도도 없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검찰에 의하면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66명이 희생되었다고



2017년 4월 과림바 시위 현장 (출처: <http://albaciudad.org>)

한다(Venezuelanalysis 6월 16일자, 2). 한편 일부 보도(Venezuelanalysis 6월 16일자, 3)에 의하면 유혈시위 희생자중 일부는 공권력이 아니라 시위대에 의한 것도 있다고 한다. 폭력시위를 둘러싸고 최근 검찰총장과 인권위원회의 의견도 서로 달랐다.

베네수엘라의 급박한 헤게모니 쟁탈의 위기를 떠나서도 신자유주의 파시즘의 위기의 맥락에서 미디어는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의 정치적 영향에서 중요한 것은 라틴아메리카가 최근 마치 좌파세력이 종말의 사이클을 겪고 있는 것처럼 대중이 현실을 잘못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사실 우파가 집권에 성공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만 하더라도 좌파의 힘이 꺾일된 것은 아니고 우파가 대중의 헤게모니를 획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합의에 의해 의회를 기초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현재 제한의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출현한 것이 아니므로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로 부를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가장 자본주의적 상품인 석

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제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계속해서 버티는 힘은 정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담론 투쟁에서 민주와 독재라는 표현을 두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와 베네수엘라의 경제 지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국내 산업 발전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며, 석유 ‘지대’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중산층 이상의 시민이 매우 적고 대부분 국민이 빈민이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적 자유주의 정치가 작동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평화적, 민주적 정치를 유지한 것은 양당의 엘리트 정치 세력이 빈민 대중을 포섭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민주주의적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모든 것을 파괴했고 특히 파괴된 주택, 의료,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차베스 혁명이 성공했다.

차베스가 등장하기 전 베네수엘라는 친미 엘리트가 주도하는 국가였고 차베스 혁명 이후 대중과 차베스주의 세력(군부 포함)이 주도하는 포퓰리즘 국가이다. 포퓰리즘 이론에서 얘기하는 대립 전선은 잘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카라카스 동쪽의 ‘차카오’ 구역으로 상징되는 세력과 빈민 대중이 주로 거주하는 ‘바리오’ 구역의 대립 전선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인플레이와 평가절하를 막기 위한 마두로 정부의 통제적 외환정책이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암시장의 활동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현재, 공식 환율이 10이라면 암시장 환율은 5,900이다. 달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필품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관료주의의 비효율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출처: <https://laradiodelsur.com.ve>)

차베스 혁명의 21세기 사회주의는 국유화에 기초한 정통 사회주의는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효율적 경제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시장을 부패한 자본주의 투기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애당초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나치게 평가 절상된 공식 환율 제도를 만든 것이 잘못이다. 여기에다 고위 관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특혜 있는 곳에 부정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입상이 달러를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팔수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거기에다 정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 인플레이가 통제 불능상태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환율이 700정도 되는 또 다른 환율 제도를 만들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자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

마두로가 권위주의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 많다. 그러나 이런 성향은 이미 차베스 정부 때부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좌파 학자인 에드가르도 란데르(Edgardo Lander)이다. 이들의 비판은 정부 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효율성을 낮춘 이유 중의 하나가 포퓰리즘과 연동되어 지도부가 ‘반지식인주의’(anti-intelectualismo)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식인 내부의 토론을 거치며 비판적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의적 문화와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란데르는, 차베스 혁명이 권위주의적으로 변질된 것과 관련하여, “2010년 9월의 총선에서 실질적 패배 이후 2010년 12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수권법의 통과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 때부터 의회 권력이 약화되고 정치적 논쟁과 공공 영역의 축소를 가져왔다고” 한다(Lander 2011, 1).

참고문헌

- 박상주. 2017. 「트럼프, 베네수엘라는 난장판, 군사개입할 수도」. 뉴시스, 2017.8.12일자, pp. 1-2.
- 윤현. 2017. 「베네수엘라 막장선거, 조작의혹에 ‘민심 폭발’」. 오마이뉴스, 2017.8.3일자, pp. 1-4.
- 정의길. 2017.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최고 권력기관’ 셀프 선포」. 한겨레신문, 2017. 8.9일자, pp. 1-3.
- Lander, Edgardo. 2011. "Interview: The path for Venezuela can not be neoliberalism or stalinism", <http://venezuelanalysis.com/print/6117>.
- Koerner, Lucas. 2017. "Is Venezuela's Attorney General Biased Toward the Opposition?", <http://venezuelanalysis.com/print/13191>, 2017.6.16일자, pp. 1-4.